

때 경험에 무관하게 ($p > 0.05$) 실제적인 건강 교육을 희망하였으며, 양호 교사로서의 근무 년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 < 0.05$)

10. 양호교사로서의 근무 년수와 직업 만족도와와의 상호 관계를 보면 오래 근무한 자가 불만족한 경향을 보이므로서 양호교사의 충원을 물론 사기 양양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교 학생의 월경 실태조사

적십자간호 제2권 제1호, 1979.

고 영 애

월경은 단순한 생리학적 현상이라기 보다 성숙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사춘기의 지표가 되며 여자에게는 성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사춘기 연령이 점점 낮아져 가고 있으며 국민학교 연령층이 성교육실시에 적절한 시기이다. 이에 이들의 생리실태를 파악하여 성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1978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내에 소재해 있는 4개 공립 국민학교 6학년 여학생 9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경 실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월경경험율은 16.1% 였다.
2. 월경시작시기는 대부분이 6학년 2학기 부터였다.
3. 월경경험전 월경에 대한 지식정도는 남녀 공학반이나 여자만으로 구성된 반이나 유의한 차이 없이 87.4% 가 갖고 있었으며 지식이 없는 것은 11.9% 였다. 지식이 있는 경우 이에대한 제공자는 어머니가 여자반에서는 18.5%, 남녀공학반에서는 29.5%, 선생님이 여자반에서는 53.7%, 남녀공학반에서는 25.6% 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p > 0.05$)
4. 첫 월경시 느낌은 여자반에서나 남녀공학 반에서나 유의한 차이없이 부정적 반응이 77.5%, 긍정적 반응이 32.5% 였다. 부정적 반응의 내용에서는 걱정스러움이 43.6% 였으며 놀라고 겁난 경우가 23.5% 였다.
5. 현재 월경시의 반응은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없이 부정적 반응이 63.6%, 긍정적 반응이 32.5% 였으며 부정적 반응의 경우 걱정스러움이 37.5%, 짜증스러움이 27.1%, 우울하다가 20.8% 였다.
6.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월경시에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80.8% 였고 증상이 없는 것은 15.9% 였으며 평균 증상수는 2.1였다.
7. 월경지속기간은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없이 5~6일이 33.8%, 3~4일이 33.1%, 6일 및 그 이상이 7.9%, 1~2일이 7.9% 순이었다.

8. 월경과 수업과의 관계를 보면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없이 불편하지만 수업은 가능한 것이 실내수업에서는 57.6%, 실외수업에서는 54.3%였으며, 전혀 불편없다가 실내수업이 26.5%, 실외수업이 29.5%, 몹시 불편하여 수업받기 어렵다가 실내수업에서 6.0%, 실외수업 8.6%로 나타나 월경시 실외수업과 실내수업간에서 의미있는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9. 초경시 처리방법은 다른이에게 물어보아 해결한 것이 68.2%였으며, 당황해하다가 식구에게들켜 해결된 것이 12.6%, 혼자 쉽게 해결한 것이 11.9%였다.

10. 생리 및 육체적 변화에 대한 의논대상자로서는 어머니가 66.2%, 언니 24.5%, 친구 13.2%, 기타 4.6%였으며 선생님은 1.3%로서 가장 하위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서 성교육은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정규교과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과 이들 어머니에게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생리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을 제언한다.

일부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조사연구

적십자 간호 제2권, 1979.

방영옥

1978년 12월 2일~14일 사이에 서울의 4개 남자 고등학교 학생 744명을 대상으로 흡연상태와 흡연에 관한 지식,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흡연중인 학생이 31.05%,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25.81%, 전혀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이 43.15%였다.

2. 처음 흡연연령은 14세~16사이가 37.59%로 가장 많았고 그 동기는 호기심으로 한 경우가 32.87%,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32.16%였다.

3. 흡연시 기분은 죄책감이 들었다에 31.68%,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에 31.20%였다.

4. 처음 흡연장소로는 교외가 32.86%로 가장 많았고 자기집은 27.42%였다. 흡연시 대상자로는 친구와 같이(43.97%)가 가장 많았고 혼자서가 24.35%나 되었다.

5. 주로 흡연하는 장소로는 자기집을 택하였고(28.60%), 그 이외의 교외(22.46%), 친구집(18.68%), 학교(15.60%)등을 이용했다.

6. 학생의 흡연실시를 부모 모두 모르는 경우가 40.66%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24.11%였다.

7. 현재의 흡연정도는 일정치 않다가 30.73%, 1일 3~6개가 29.55%, 1일 1~3개